

새내기 최원준 ‘끝내기 달인’



12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경기가 열려 KIA가 LG에 11-10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9회말 무사 만루에서 KIA 최원준이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친 후 기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2일 LG전 9회말 11-10 대역전극 대미 장식

5월 28일 롯데전서는 만루포로 생애 첫 끝내기



끝내기에 올고 웃은 '호랑이 군단'의 한 주, 그 시작과 끝에 남다른 '아기 호랑이' 최원준이 있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1일 kt 위즈와의 원정경기가 끝난 뒤 떨어지지 않는 발 걸음으로 광주로 내려왔다.

이날 선발 팻단이 3개의 홈런에 흔들리면서 어렵게 전개됐던 경기. 6-7에서 KIA의 마지막 9회 공격이 진행됐다. 믿었던 '해결사' 최원준이 kt 마무리 김재운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김기태 감독은 마지막 볼수를 살리기 위해 대타 최원준을 투입했고, 최원준은 사령탑의 바람대로 2루타를 터트렸다. 꺼져가던 볼수를 살린 최원준에 이어 안치홍이 고의 사구로 출루하면서 1사 1·2루. 그러나 베테랑 이범호가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한승택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타격이 약한 한승택의 타석이었던 만큼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한승택은 생애 첫 장타를 3루타로 장식하면서 승부를 8-7로 뒤집었다.

역전극의 막을 열었던 최원준은 동점 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는 kt의 포수 이해창에게 쏟아졌다. KIA 마무리 김윤동이 9회말 2사 1·2루에서 이해창에게 펜스 맞는 타구를 허용하면서 경기가 8-9패로 끝난 것이다.

잔상이 많이 남은 패배를 안고 안방으로 돌아와 LG 트윈스를 상대한 12일. 이번에도 9회 최원준에게 눈길이 쏠렸다.

이날 선발 정용운이 1회부터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간 KIA는 8-10으로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9회를 맞았다. 선두타자 안치홍이 11구 승부 끝에 안타를 얻어내면서 분위기를 살렸고, 나지완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1·2루가 됐다. 여기에 이범호의 몸에 맞는 볼로 베이스가 꽉 찼다.

이어 앞선 타석에서 2루타를 때리며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안방마님' 김민식이 타석에 섰다. 기다릴 것도 없이 조구에 방망이를 낸 김민식이 세 번째 안타로 3루에 있던 안치홍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타율 1위' 김선빈이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밀어내기로 10-10 동점이 만들어졌다.

끝내기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안고 타석에 들어선 이는 이날 3루수로 선발 출장했던 '막내' 최원준이었다. 최원준은 1볼 1스 크라이크에서 침착하게 중견수 방향으로 공을 보냈다. 전진수비를 하고 있던 LG 안익훈의 호수비가 나오면서 안타성 타구가 플라이로 둔갑했지만, 닥쳐가게 끝내기 주자가 홈을 밟았다.

kt전 패배의 아쉬움을 날린 끝내기쇼의 대미를 장식한 최원준, 올 시즌 그의 두 번째 끝내기다.

최원준은 지난 5월 28일 롯데전에서 생애 첫 끝내기 경기를 했다. 세 번의 만루 찬스를 무산시킨 뒤 맞은 연장 11회, 네 번째 만루 찬스에서 홈런을 날리며 주인공이 됐다.

끝내기 만루홈런을 치고도 앞선 타석의 부진 때문에 웃지 못했던 최원준은 LG전 끝내기 이후에는 "앞에서 선배들이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눈에 보이면 치자는 생각으로, 정확히 때리려고 했다"며 활짝 웃었다.

웃음은 보였지만 '수비' 고민은 남았던 경기. "수비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더 집중했다"고 말한 최원준은 이날 강승호의 어려운 타구를 잘 잡고도 약수구를 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사람들을 들었다 놓은 남다른 '아기 호랑이'답게 복습도 특별했다.

최원준은 13일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 가니까 TV에 끝내기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 영상은 봤지만 특별히 끝내기 장면을 찾아보지는 않았다. 대신 수비에서 실수한 부분을 찾아냈다. 잘 잡아놓고 너무 여유를 부렸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선빈 "원준아 너는 내 뒤에 있어야 해"

불펜진 "이젠 우리가 해줘야죠"

덕아웃 T 특특

▲너는 내 뒤에 있어야 해
김선빈과 최원준의 잘 맞는 조합이다. KIA는 지난 12일 LG와의 홈경기에서 9회 무사 만루에서 나온 최원준의 희생플라이로 11-10, 끝내기 승을 거뒀다.

최원준에게는 두 번째 끝내기 경기다. 5월 28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연장 11회 끝내기 만루포를 쏘아 올렸다. 이날 최원준은 7번 김선빈에 이어 8번 3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그리고 김선빈이 세 타석 연속 고의사구로 출루하는 등 최원준에게 무려 네 번의 만루 상황이 찾아왔다. 세 번의 만루 기회를 날렸던 최원준은 네 번째 만루 상황에서는 끝내기 홈런을 기록하며 앞선 부진을 만회했다.

12일에는 김선빈이 9번, 최원준이 1번으로 나오면서 모처럼 두 사람이 나란히 섰다. 그리고 9회말 김선빈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10-10을 만든 뒤 최원준이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다시 한번 환상의 호흡을 과시했다. "끝내기 치고 나서 원준이가 자기는 형 뒤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며 웃은 김선빈은 "너는 내 뒤에 있어야 해"라고 최원준에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해줘야죠
전반기 부진을 딛고 후반기 새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불펜진이다.

LG를 상대로 끝내기 승을 거뒀던 12일, KIA는 선발 정용운이 0.1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어렵게 경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극적인 끝내기 승으로 마무리됐던 경기. 숨은 조역은 많은 이닝을 착실하게 소화해준 홍건희와 심동섭이다. 일찍 몸을 풀고 1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홍건희가 4.2이닝을 3실점(2자책)으로 버티었고, 심동섭도 3.1이닝 1실점으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했다. 임창용도 노련하게 위기를 넘기며 무실점으로 8회를 막고 끝내기쇼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경기가 끝난 뒤 심동섭은 "처음에 감이 안 좋았는데 던지다 보니까 몸이 풀린 느낌이었다"며 "이제는 우리(불펜)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타자들이 잘해왔으니까 남은 시즌에는 우리가 잘해 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생각했던 대로
생각대로 잘 풀렸던 기분 좋은 하루였다.

12일 '안방 마님' 김민식은 시즌 처음으로 3안타 경기를 했다. 세 번째 안타는 9회부터 극적인 동점타이기도 했다. 조구부터 자신 있게 스윙을 하면서 끝내기쇼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된 김민식은 13일 "오즘 생각했던 방향으로 타구가 안 가고 잘 안 됐다. 그런데 어제는 생각대로 타구가 잘 갔다."

마지막 타석에서는 상대가 변화구를 많이 던지니까 변화구를 노리고 있었다. 앞선 타석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자신있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2018 프로야구 3월 24일 앞당겨 개막전

AG기간엔 리그 중단

프로야구 2018시즌이 3월 24일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는 안방에서 새 시즌을 연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리그가 중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3일 제6차 실행위원회에서 확정된 내년 KBO 리그 경기일정 편성 원칙을 발표했다.

3월 24일 시작되는 2018시즌의 개막전은 장소만 결정됐다.

앞서 개막전은 2년 전 순위로 1-6위, 2-7위, 3-8위, 4-9위, 5-10위가 대결하던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내년 시즌에는 상위 5개 팀 홈에서 개막전을 갖되 상대 팀은 흥행을 고려해 KBO가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위 KIA는 두산 베어스, NC 다이노스와 홈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4위 LG는 잠실 경기를 함께 쓰는 2016년 우승팀 두산이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되면서 원정으로 시즌을 연다. 대신 6위 팀인 SK 와이번스가 안방에서 시즌을 연다.

또 홈에서 개막전을 갖는 5개 팀은 토·일요일 2연전부터 개막 다음 주 주중

3연전까지 홈에서 5연전을 치른다. 대신 시즌을 원정경기로 시작하는 LG, 한화, 롯데, 삼성, kt 등 5개 팀은 홈 개막 시리즈를 개막 다음 주 주말 3연전(3월30일~4월1일)으로 치른다.

올스타전은 7월 14일에 열리며 장소는 미정이다. 또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일정을 고려, KBO 정규시즌을 일시 중단한다.

'아시안게임 휴식기'가 있지만 정규시즌은 올 시즌처럼 팀당 144경기 체제로 진행된다. 2연전도 그대로 병행된다.

KBO는 "정규시즌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팀 간 16차전씩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로 열린다. 연전 편성도 올해와 동일하게 3-3, 3-3, 2-2연전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연전 편성과 관련하여 격년제로 3-3, 3-3, 3-1연전을 편성하는 안 등을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구단 간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KBO 시범경기는 3월 13일에 시작해 3월 21일까지 팀당 8경기씩 총 40경기가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사인 볼트가 13일(한국시간) 열린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승전에서 허벅지 근육 경련으로 쓰러진 뒤 자신을 앞지른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볼트 마지막은 씹쓸했다

런던 세계육상선수권 400m 계주 최종 주자 다리 절뚝이며 넘어져

우사인 볼트(31·자메이카)가 고통 속에 현역 마지막 경기를 끝냈다. 레이스는 마치지도 못했다. 특유의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칠 기회도 없었다.

볼트는 13일 영국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자메이카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요한 블레이크로부터 baton을 이어받은 볼트는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 왼 다리를 절뚝였고 트랙 위로 넘어졌다.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볼트는 일어나지 못했다. 경기가 끝난 뒤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볼트는 관중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 뒤, 실내로 이동했다.

볼트는 6일 남자 100m 결승에서도 9초95로 3위에 머물렀다. 9초92의 저스틴 가틀린(35·미국)에게 정상을 내줬고, 10살 어린 신예 크리스천 콜먼(21·미국)에게도 밀렸다.

당시에는 '메달리스트'로 세리머니를 펼칠 기회가 있었다. 볼트는 개틀린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역 마지막 경기는 결과도, 퇴장하는 뒷모습도 초라했다.

훈련 부족이 낳은 결과다. 볼트는 지난 4월 절친한 동료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은메달리스트 제메인 메이슨(영국)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볼트는 대회 전 "충격이 너무 커서 3주 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훈련 진행이 더딘 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런던 세계선수권이 열리기 전 몸 상태를 최종 점검한 볼트는 "마지막 질주를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여전히 최고"라고 자신했으나, 충분한 훈련을 하지 않은 볼트의 몸은 더는 최고가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볼트는 세계 스포츠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를 석권하며 단거리 황제로 즉위한 볼트는 2012년 런던올림픽 3관왕, 2016년 리우올림픽 3관왕 대업을 이뤘다. /연합뉴스